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3남, 5여선교회 주관 예배입니다.

2012년 교회학교 교사 임명식이 오늘 1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집회는 3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봄학기 성서학당이 3월 8일(목)부터 열립니다.

오전 10시 30분 강의 : <로마서를 통해 삶을 돌아보다> (김기석 목사)

오전 11시 30분 강의 : <민수기와 신명기> (김재홍 목사)

저녁 7시 30분 강의 : <신약성서와 만나다> (김기석 목사)

교사수련회가 10일(토)부터 11일(주) 새벽까지 탐수양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부활절에 세례(유아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오늘 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씨와 박서영 씨가 결혼합니다. 결혼예식은 3월 10일(토) 오후 2시 청파교회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2012년 교사명단

교 육 부 장 : 김인걸 교회학교장 : 하현철 아동부장 : 곽권희 청년부장 : 김경연

유치부교사 : 최희영 주혜연 최문희 김태환 이혜수

아동부교사 : 신진식 권미정 안 현 리 봄 방 준 윤 윤 조지연 박영실 이진영

조재훈 하진솔 이성경

중고등부교사 : 박아름 장성호 이명희 한준혜 이나단

식 당 봉 사 :	이영란 이현순 이소혜 이소애 이윤정 방극숙 이국노
3/11식 당 봉 사 :	박혜경 조항미 김민화 이유리 최희정 백묘현 이성범
오늘설거지봉사 :	이자애 이우엘 이나단 노준우
다음 주 설거지 :	이혜령 김정민 하진솔 주경진
새 교 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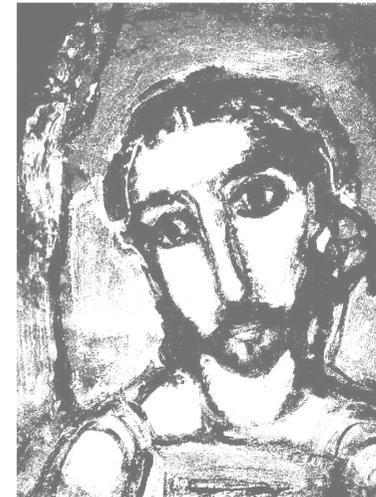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 육 관	수요일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메마른 대지에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의 각박한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잡스럽게 떠다니는 여러 감정의 편린들을 가라앉혀 주시고,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나라의 씨앗을 키워낼 수 있는 생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재의 수요일, 이마 위에 재를 바르며 흠에서 온 인생이니 흠으로 돌아갈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는 작은 일들에 연연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 번 우리 마음의 이마 위에 십자가를 그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세기	이소애	강인숙	강인식	김정숙	권순	김경수	김기석	김희우
김범진	김미현	김보라	김세룡	김승현	김수진	김영아	김인걸	김영희
김인석	이선화	김정애	김종술	박미란	김지윤	김지호	김혜리	김혜영
김희진	박홍재	문홍일	박규석	박경선	박범희	박미영	박상규	박영희
방문성	박해경	방민숙	방준배	박삼순	변재민	이소혜	서정순	송남순
신진식	변혜정	안숙영	양상철	박재란	양재성	이미심	서오진	노이순
왕수명	유상진	유은정	윤미경	윤주원	최윤선	이광은	형인주	오영숙
김미화	이동천	이봉옥	이예서	이우영	최귀영	이대호	이숙경	장영숙
김주호	임고운	임승동	백해영	김재영	정복선	정경희	정선희	장왕순
장원호	박성희	장재영	김재영	정복선	정선희	정연철	한정환	왕영상
조문규	진정숙	조순덕	최은미	최재욱	이수정	최정환	곽정환	한상경
한상균	한성건	한완식	임정자	허준호	홍복선			

감사헌금:

강순배	곽권희	권혁순	박해경	김극	김보라	김지호	전혜리	김필순
김혜영	민병배	문현미	박수경	이창석	박숙영	서효진	정윤성	김양인
이재문	이제리	이한림	김명희	장석원	남은총	장사랑	조순덕	한상의
정영선	홍성식	이유리	무명4					

생일감사헌금:

이광섭 무명

녹색꿈헌금:

김범진 김용진 박효선 김재흥 최희영 신진식 변혜정 윤정덕 구성실
 임주빈 최현옥 최재욱 이수정 무명2

장혜숙	백혜숙	박영희	조순덕
노순옥	박성희	김미순	박성희
최희영	최경미	임정자	차해심
장영숙	신영신	박경원	신영신
정경례	진정숙	안정숙	이봉배
박홍재	곽권희	조영순	박홍재
박호선	허정윤	배삼순	홍복선
이순정	김금순	이순정	김금순
이형숙	권미숙	김재광	이형숙
안홍숙	오현정	이증자	안홍숙
정영선	서정순	서정순	송양진
박해경	조향미	이기분	심양상
김재흥	오자영	교회	
이범석	이근식	교회	
손성현	곽상준	교회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

F Dm Gm B \flat C7

1. 한 송이 꽃 - 을 피우기 위해
2. 수줍은 꽃 - 망울 때 뜨리려고

F Dm Gm B \flat C7

주님이 십자가 - 에 달려주시네
주님이 십자가 - 에 달려외치네

F Dm Am F

이 세상 모든 아 - 품 다 - 품고
나 - 의 모 - 든 - 죄 다 지우고

C Gm B \flat C7 F

이민족 모든 어 - 둠 다 - 마시고
너 - 의 모든 죄 - 롭 다 - 거두고

F Dm B \flat C7 F

한 - 송이 꽃 - 을 피우기 위해

C Gm B \flat C7 F

주님이 십자가 - 에 달려주시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보라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해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십시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목표입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을 힘차게 따라가십시오.

아멘. 옛 습관과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이끌려 향방 없는 삶을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주님을 의지해 가야 할 곳을 분명히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겪어야 할 저항과 반대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르러야 할 목표를 바로 보고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3남, 5여선교회 주관 예배	3월 기도의 밤 인도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공동기도	이명희 집사
	김기석 목사	방문성 장로	백혜숙 권사

3월	영접위원	한완식 이호원 조문규 김금순 진정숙 박시내
	헌금위원	김인걸 박효선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주님도 편애를 하시나요

(요 11:1-45)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는 젊어서 고생고생 많은 재산을 모아 자식들을 다 훌륭하게 교육시키고, 자신도 탄탄한 기업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수성가한 사람답게 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죽을 때 돈을 젊어지고 갈 수 없다는 것도 모르지 않아,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과 나누는 데도 얼마나 적극적인지 모릅니다. 그가 직접 운영하는 장학재단도 있고, 집중적으로 돕는 사회사업 기관도 몇 개나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부유할 뿐 아니라 사회적인 존경도 한 몸에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가족이나 친척, 친구 등 주변 인물들의 평가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혹평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이웃을 돕는 데는 그렇게도 술선수범 적극적인 분이 친구나 친척 중 곤경에 처한 이가 도움을 청할 때는 어쩌면 그렇게 단칼에 거절을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교육을 시켜줬으니 나는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했으니까.” 라고 냉정하게 모르는 척했다고 합니다. 친구도 어려웠을 때 사귄 친구는 다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부자는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의 소싯적 친구들은 거의 아직도 가난하기 때문에 만나면 자연히 아쉬운 소리를 듣게 될 테고 점심 값이라도 내야 할 테니까, 죽마고우는 아예 상대를 안 하는 걸 생활신조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신조에 그렇게도 철저히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번 돈인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사사로운 일에 생색도 안 나게 쓸 수 있겠느냐는 생각 때문이라더군요. 그의 단한 박애가 존경스럽다기보다는 측은합니다. 가족도 죽마고우도 사랑할 줄 모르는 박애는 자기도취나 명예욕이지 어찌 사랑이

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널리 공평하게 사랑하기 위해 더 중요한 거,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특별한 느낌이 주는 기쁨을 생전 못 느껴볼지도 모르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설하셨으니까 절대로 편애 같은 건 안하셨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라자로와 그의 여동생들인 마르타와 마리아를 사랑하는 그 극진함은 편애의 아름다움을 감동적으로 보여줍니다.

주님, 그건 결코 편애가 아니라고 나무라지는 마옵소서. 저는 주님이 박애정신의 참 원조임을 압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타와 라자로를 인간을 고루 사랑하는 정도를 넘은 특별한 우정으로 사랑하시어 마리아와 마르타의 애통을 보시고 더불어 눈물까지 흘리신 주님이 더 좋은 걸 어찌합니까. 제가 편애라 말씀드린 건 편벽한 사랑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 사람에게 박애는 노력을 하고 수양을 쌓아야 되는, 어느 만큼은 거룩한 위선일 수도 있으나 누구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인간적인 기쁨이요, 삶의 꽃이란 뜻입니다.

당신이 그들 남매를 위해 보이신 눈물만큼 당신을 육신을 갖춘 인간으로 가깝게 느끼게 하는 대목도 드물 것입니다. 그 장면을 상상하면 당신의 어릴 적까지를 미소로써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보통 어린애처럼 똥오줌을 싸 기저귀도 찻을 테고, 걸음마를 하고부터는 개구쟁이 짓도 어지간히 하셨지요? 인간의 육신을 취한 주여, 찬미 받으소서.